



고향길

글 김희준 기자(뉴스1)

아무래도 설 연휴는 신정보단 구정이다. 매년 치르는 기차 표 예매전쟁에 부모님 드릴 선물세트가 눈에 가는 시기다.

바람이 차고 코끝이 말갭게 얼어 와도, 몇 시간이 걸리는 교통체증에도 고향을 향하는 길은 들뜨게 마련인가 보다.

하지만 우리 두 형제 모두 손자를 안겨드리지 못한 대죄(?)를 지은 탓에 고향길은 항상 머뭇거림이 있다. 고향 부산에서 이웃해 살고 있는 작은 이모네 외사촌들의 아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어머니는 이제 손자 욕심은 없다면서도 언지시 친구네 딸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죄송스럽다.

하필 3년 전 추석엔 외사촌 동생네 아기가 태어나서 우리 집에 모였던 총각들은 친척들의 집중 비판을 받은 적도 있다.

고 녀석이 커서 가끔 어머니 휴대폰으로 영상인사를 보내니 시간이 또 가긴 가나 보다.

대전역에서 전날 새벽에 취소돼 급하게 잡은 기차표의 좌석을 확인한다. 스마트시대라고 하지만 고향 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한결같다. 긴장과 행복이 묘하게 합쳐진 표정. 시대가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손엔 작은 선물상자라도 들려 있는 모습도 십수 년 전 처음 서울에 올라와 고향 가는 길과 꼭 같다.

철도는 같은 길을 가기에 1년에 3~4번씩은 보는 차장 밖 풍경이 이제는 꽤 익숙하다. 이쯤 되면 들이 나오고 이쯤 지나면 언 강이 나온다. 긴 터널과 속도를 늦춰가는 구간도 외울 만큼 기차풍경은 내게 고향길의 일부와 다름없다.

표가 없어 5시간 무궁화 열차 입석길을 딱 한 번 간 것 빼곤 훌가분한 1명인 나는 대중교통에 수혜자인 셈이다. 결혼한 친구들은 3~4좌석의 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장 고소를 흘리다가도 지금 고향길은 그마저 부럽다.

무뚝뚝한 경상도 아들 둘을 독립시킨 부모님은 아버지가 수십 년 경찰직을 은퇴하시자 이모네가 살고 있는 부산 외곽 신도시로 아파트를 옮겼다.

신생도시인 탓에 교통여건이 좋지 않아 전광판에 곧 도착한다는 버스가 바람 맞추기 일쑤다. 부산역에 내려 지하철을 타고 하단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이 날도 그렇다. 바람은 찬데 온다는 그 버스는 기억이 없다. 다들 보따리를 들고 이고 발을 동동 구른다. 설 연휴라 차 몇 대가 쉬는 까닭도 있겠지만 고향집에 빨리 달려가고 싶은 사람들 마음이 얹혀진다. 누군가는 “세금 걸어서 뭐하노”하며 분노한 일성도 흘러지만 이내 온 버스에 냉큼 올라탄다.

가장 늦게 만들어진 신도시행 버스가 가장 빈약하다. 1시간 기다림 끝에 결국 마을버스 신세를 지게 된 사람들도 가만 보니 우리 집 가는 동행인 듯하다.

운전을 좋아하지 않는 탓에 십수 년 장롱면허를 신분증 대용으로만 쓴 나도 이때는 후회가 든다. 그렇지만 고향길 향하는 버스에 타니 시름도 고민도 난로 속 눈과 같다.

도시 변두리 출신인 탓에 고향길엔 흙의 정서보단 콘크리트 정서가 맞다. 하지만 다행히 바다를 낀 도시 탓에 자연 풍경 자체는 어디에도 부럽지 않다. 을숙도를 넘어가는 바닷물 잔내와 민물내가 미묘하게 섞인 바람이 고향땅임을 알려온다.

버스는 공단을 휘휘 돌아 이리저리 달린다. 덤프트럭이 더 많이 보이는 산업도로라 마을버스도 덩달아 기세등등하다. 살짝 속도도 넘긴듯하지만 더 빨리 가기만 기대한다.

저만치 점 같은 산과 도시가 보인다.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지사동은 아파트 단지만 없으면 산골이라고 해도 무색하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니 아파트 대단지의 부속물들이 점점이 생겨난 것이 보인다. 피아노, 수확학원부터 빵집, 편의점, 은행 등이 하나둘씩 원래 있던 것처럼 자리를 잡았다. 동네엔 헬스장을 낀 사우나도 들어와 한동안 유행을 탔단다. 교통만 나아지면 좋으련만 나가면 들어오기 힘들고 들어오면 나가기 힘들니 내 입장에선 고향 친

구 만나는 일도 요원하다.

운동을 하다가 무릎을 다친 어머니가 기어코 버스정류장에서 있다. 다른 곳을 보다 내가 내린 것을 뒤늦게 발견하곤 활짝 웃으신다. 내가 어머니 아들인 걸 증명하는 눈가웃음 주름이 같이 반긴다.

“밥 안 못제? 가자.”

어머니가 손을 잡아 이끈다. 티 안 내시려고 찬찬히 걷는데도 불편한 무릎에 가슴이 시린다. 보조기구를 사드린다고 해도 한사코 지금 뭔가 의존하면 안 된다는 분이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 요즘엔 걷기밖에 못하니 안타까울 수밖에.

아버지는 밖에 불일을 보고 뒤늦게 오셨다. 사실 기차표가 구해지지 않아서 내일쯤 내려가려고 생각했던 터라 두 분 다 일찍 온 내가 반가웠나 보다. 큰절과 용돈과 사양과 포옹이 엉킨다.

항상 눈물 나는 것은 저녁 대목이다. 설 음식으로 좋아하는 오색 나물에 시디셔서 우리 집에선 나만 먹는 신김치가 식탁에 오른다. 올해는 형이 오지 못해 한자리 빈 식탁에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꼭 기억해 올리는 우리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다.

손질한 게와 된장을 풀어 만든 찌개는 둘도 없는 밥도둑이다. 물김치로 입안을 적시고 계살을 발라 원 없이 먹는데 그만큼 마음까지 든든하다. 고향집이구나. 고향에 왔구나.

따뜻한 밥과 아버지가 건네주신 무뚝뚝한 막걸리 한 잔에 1년간의 긴장이 풀린다.

남부여대의 고향길은 내게도 아직 따뜻한 부모 품이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나는 또 기차길을 나서도 불편한 버스에 몸을 싣고 이 길을 다시 올 것이다. 언제나처럼. 항상 식탁 위 계장 찌개가 따스하게 부모님의 건재를 알려주길 언제나처럼 바란다. **KAPA**